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 장 19 절]

NO	성 명	기 도 제 목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 장 3 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교회를 위한 기도

1)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11/14 (토), GE 주말 수양회
- 11/15(주일), 교회 협의회 주최 사모 Blessing Night, 5:00pm
- 11/16(월) ~ 11/21(토),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 (강사: 담임목사님)
- 11/17(화), 교역자 · 그룹장 모임 8:00pm

2) 한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11/2(월)~4(수), 전주 바울교회 부흥성회 (담임 신현모 목사)
- 11/6(금)~8(주일), GMI 은혜교회 추수감사 특별부흥회
- 11/10(화)~12(목), 한미 목회자 포럼
- 11/16(월)~21(토),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본교회)

가정교회 보고서

은혜한인교회

가정교회 예배안

11.1.26



가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무너지는 시대에도 의인은 복이 있다 | 이사야 3: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 Welcome

요즘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지난 한 주 Grace Time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2. 말씀요약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정치·군사·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듯한 혼란 속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의지하던 양식과 물마저 끊어지는 심판의 선포 한가운데, 하나님은 갑자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에도 의인이 복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무너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별)하신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 바로 뒤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11 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상은 "다 똑같이 망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말 3:18). 소돔에서 롯을, 애굽에서 고센 땅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무너지는 성 안에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의 흔들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2)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안전을 "의뢰하며 의지"했습니다. (1 절) 반면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해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시 27:8) 선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선물이 끊어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합 3:17-18)

3) 의인은 심은대로 순종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겨진 비밀처럼 감추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신 성경의 지혜로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미 6:8). 정직과 사랑과 섬김의 작은 순종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먹을 열매가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남유다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열망과 매일의 순종이 하나로 묶일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설 것입니다(시 1:3). 서로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는 가정교회가 됩시다.

3. 함께 나눠봅시다

1)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사 3:10)는 말씀처럼, 많은 것이 흔들리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더 귀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지금 내 신앙에 어떤 힘이 되었나요?

3) 이번 한 주,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씨앗'을 심을 작은 실천 한가지는 무엇인가요? 서로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며 나누어 봅시다.

합심기도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의인으로 구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매일의 순종으로 의의 열매를 가정교회가 되게 하소서.